

# 개인·기업이 '생태계' 만들고 정부는 지원하고

창조경제 어떻게 추진되나

## 지원방안 등 의견수렴 매월 분야별 계획 발표

창조경제 추진의 핵심은 정부보다 민간이 자생적으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융합해 기준에 없던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도 민간의 움직임이 창조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점에서 정부 정책은 생태계 주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과학하는 데서 시작한다.

정부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위해 이미 지난달 24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와 함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지원하는 창조경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정부는 경제단체들과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계의 지원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협의회 구성은 최근에 이뤄졌으나 정부가 5일 발표한 부처별 창조경제 추진과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부처 합동으로 추진 과제를 발표했으며 경제 5단체와 중견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등 민간단체로부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필요한 지

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실현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의 실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매월 차례대로 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우선 이달 중에는 소프트웨어,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중견기업, 산업부문 등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계획을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이 발표한다.

다음달에는 각종 출연연구소, 대학의 산학협력단, 지식재산 등과 관련해 창조경제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된다. 같은 달에 산업 분야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종합대책도 소개될 예정이다.

## 전력 경보 올해 첫 '관심' 발령

### 예비전력 350만kW 불과

전력거래소는 5일 오전 11시20분 예비전력이 순간적으로 350만kW 미만으로 떨어져 전력수급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된 것은 올 여름 들어 처음이며, 한파로 난방수요가 급증했던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5개월 만이다.

전력수급경보는 예비전력이 400만 kW 이상 500만kW 미만이면 1단계인 '준비', 400만kW 미만이면 2단계인 '관심', 300만kW 아래로 떨어지면 3단계인 '주의', 200만kW 미만일 때 4단계인 '경계', 100만kW 아래면 5단계인 '심각'으로 발령된다.

전력거래소는 앞서 이날 오전 9시 21분 전력수급경보 '준비' 단계를 발령했다.

준비 단계는 지난 3, 4일에 이어 사

흘 연속 발생됐다. 올해 여름에 전력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4차례로 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 대구 32도, 광주 31도 등으로 예보됨에 따라 오후에는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거래소는 오후 2~3시에 최대 전력수요 6천370만kW 예비전력 351만kW(예비율 5.51%)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했다. 전력 당국은 이에 따라 민간자가 발전기 공급확대, 배전용 변압기 전압 하향 조정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당국은 전날 민간자가 발전기 가동(69만2000kW), 시운전 발전기 전력 반영(27만3000kW) 등으로 공급력을 확대하고 주간예고 수요관리(120만kW), 배전용 변압기 전력 하향 조절(70만kW) 등으로 수요 감축을 시도했다.

/연합뉴스

## 스마트폰 설문조사·스크린 골프…

스마트폰 설문조사 서비스업체는 설문조사와 스마트폰이 결합하면서 설문조사의 새로운 방식을 창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기준보다 저렴하면서 빠르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소셜 디아이트 서비스는 자신과 비슷한 체형과 체중 감량 목표치를 가진 상대와 앱을 통해 1대 1로 대결을 하고 건강식도 판매하는 서비스다.

/연합뉴스

정보통신 기술 외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조경제 사례도 적지 않다.

실내에서 필드와 같은 라운딩 환경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에 3D 그래픽과 가상현실을 접목한 스크린 골프가 대표 사례다.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 등의 기술을 접합해 해당 산업의 재도약이 이뤄졌다면 그것도 창조경제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연합뉴스



### 무더위 쿨스카프 인기

을 여름 들어 처음으로 전력경보 '관심'이 발령된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패션잡화 매장에 쿨스카프와 멀티스카프가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스 폴리머 소재의 쿨스카프는 물에 2~5분 담가면 아이스 폴리머가 팽창해 시원해진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이것이 창조경제

### "창의+과학·ICT=일자리"

가 강점을 보이는 ICT와 산업의 '기초체계'인 과학기술을 택했다.

창조경제는 정부 정책으로는 이를 수 없다. 창조경제의 주역은 개인과 기업 등 민간이다. 개인과 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도록 돋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창조경제 생태계는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산이 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일자리가 개인과 기업, 국가의 성장을 돋는 선순

환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창조경제의 씨앗 역할을 한다. 아이디어는 일반 회사원, 학생, 직장인, 청소년 등 누구나 제시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들려면 '한 번 해보자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연합뉴스

## 광주은행 '중기금융전문가 전진대회'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5일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은행 SRP(중기기업금융전문가)와 임원·부서장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RP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은행 SRP 42명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총력 지원을 다짐하고, 전문가 초청강의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이해를 넓혔다. 또 대회 이후 기자자동차 광주

공장을 견학하고 광주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이해를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 5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해 SRP 발대식을 갖고 전문인력을 운용, 통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 서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여수산단 기업들도 절전모드

### LG화학 전기분해로 보수 일정 조정

### GS칼텍스 전력 10% 자가발전 총당

을 여름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수산단의 에너지 소비 기업들이 고강도 전력 절감 활동에 들어간다.

5일 산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여수공장 내 전기분해로 공정의 절기 보수 일정을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7~8월 중으로 변경해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분해로 공정은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공정으로, 정비 기간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또 냉동·압축기 등 대표적인 전력 소비 설비는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인 오전 10~11시와 오후 2~5시를 피해 가동하기로 했다.

GS칼텍스는 정부기준 전력경보가 '주의' 단계로 들어서면 곧바로 자가 발전기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 자가 발전기(30MW급)가 가동되면 전력 절감에 동참할 계획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비상 매뉴얼이 가동되면 전력소비량을 1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유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 전력 낭비 해소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절전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 농협 부회장 김태영씨, 경제대표이사 이상욱씨

농협중앙회 신임 전무이사(부회장)로 김태영 경기신임보증재단 이사장이 선임됐다. 농협경제대표이사는 이상욱 중앙회 흥보담당 상무가, 상호금융대표는 김정식 교육지원 상무, 조합감사위원장은 김사학 NH농협은행 부행장이 선임됐다.

김정식 신임 상호금융대표는 광주시지부장, 조합감사위원장 회무처장을 동시에 지냈으며 김사학 신임 조합감사 위원장은 농협 서울지역본부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중앙회에 입사해 경기지역본부 은행 사업 본부장, 금융기획부장, 기획실장을 역임했으며 이상욱 신임 농경대표는 197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고양유트렌더 사장, 농촌지원 개발부장 등을 거쳤다.

김정식 신임 상호금융대표는 광주시지부장, 조합감사위원회 회무처장을 지냈으며 김사학 신임 조합감사 위원장은 농협 서울지역본부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 하나투어 '2013FW 허니문페어 최대 50만원 할인'

예약기간 2013.6.1~6.30 출발기간 2013.9.1~2014.2.28

[사전예약할인] 상품에 대해 할인 적용, 상품세목 확인

기간 중 예약 커플(2인 1쌍)에 최대 50만원 할인 제공

### 신비로운 그곳, 백두산 여행

### 인천출발

[CNPD-C2]

중국남방항공 '광주-청주 국내수송 30만원 포함 출발일 : 7월 21일~8월 31일'

매주 희요일(4박5일) / 토요일(3박4일)

연길/백두산 4일/5일 \*북피\* 499,000원~

\*본관: 백두산 북피 고성 관광, 진달래민족촌/모아산

\*특별: 3성급 / 4성급 호텔

\*호텔: 3성급 / 4성급 호텔

\*항공: 청주국제공항

\*숙박: 청주국제호텔

\*여행: 청주국제여행

\*여